



## 2023 년: 황금 비율

시간을 초월한 리베르소 디자인의 절대적인 공식,

황금비율을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phi$  (파이) 또는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신비로운 숫자를 기념합니다. 오늘날 황금비율이라 일컫는 이 숫자는 자연이 빚어내거나 인간이 만든 걸작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상징하며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1.618 로 정의되는 황금비율은 물체와의 고유한 관계를 의미하며 한 선분을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선분으로 나눌 때, 전체선분에 대한 긴 선분의 비와 긴 선분에 대한 짧은 선분의 비가 같은 때를 말합니다. 황금비율의 수학적 공식은 황금나선과 황금사각형으로 이어집니다. 황금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짧은 변과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잘라낸 후 남아 있는 직사각형의 비율이 본래의 직사각형의 비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기하학적 패턴과 직선 그리고 깔끔한 라인을 강조한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기하학과 미학의 흥미로운 연관성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에 끌립니다. 지난 수천 년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간이 아름다운 것에 이끌리는 이유와 아름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내재된 매력의 척도를 가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초의 리베르소가 공개된 해와 같은 해인 1931 년, 루마니아 왕자이자 철학자 겸 수학자인 마틸라 기카는 1927 년에 출간한 'Aesthetics of Proportions in Nature and in the Arts'의 속편인 'The Golden Number'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적에서 파이는 소라 껍데기의 나선 형태, 꽃잎의 개수, 솔방울의 형태와 같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유기적 형태에도 존재하지만 무한히 펼쳐진 은하의 형태나 소용돌이치는 허리케인의 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The Golden Number'에서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에도 파이의 원칙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파이의 원칙은 어떻게 건축, 예술과 음악 분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마틸라 기카는 책을 통해 아름다움 본연의 특성과 인류가 만들어낸 산물 전체를 이어주는 내재된 어우러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자연이 주는 미적 요소와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은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들판과 산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스위스 발레드주의 숲에 둘러싸인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오랜 역사

마틸라 기카의 서적이 출간되기 2 천 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미스터리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300 년 유클리드는 자신의 저서 'Elements of Geometry'에서 "외중비"라는 용어로 파이를 처음 정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기원전 6 세기,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기하학의 신비로운 비율을 살펴보고, 조각가 페이디아스는 기원전 430 년경 파르테논 신전의 장식에 황금비율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 세기에 피보나치로 더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피사노는 규칙이 있는 수를 나열한 피보나치 수열(0, 1, 1, 2, 3, 5, 8, 13, 21, 34, 55, 89...)을 정의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각 수는 바로 앞 두 수의 합계이며 각 수를 바로 앞의 수로 나누면 각 수와 이전 수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파이에 가까워집니다. 놀랍게도 이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황금나선을 정의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3 세기가 지난 후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황금비율과 피보나치 수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498 년, 루카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삽화가 들어간 논문 'La Divina Proportione'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제시하는데 이후 황금비율은 유럽 역사와 예술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의 기원 이래 위대한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때로는 철저한 의도 아래, 때로는 아름다움을 향한 본능에 따라 황금비율을 적용한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기자(Giza)의 피라미드와 샤마시의 바빌로니아 석판(기원전 888 ~ 885), 샤르트르의 고딕 성당 그리고 20 세기를 풍미한 건축계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를 비롯해 라파엘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에서 후기 인상파 화가 쇠라, 이후 살바도르 달리, 피에트 몬드리안, 입체파 화가들로 이루어진 섹시옹 도르(Section d' Or, 황금분할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황금비율의 원칙을 활용했습니다. 오늘날, 신용카드는 물론 자동차 디자인과 수많은 브랜드 로고까지 일상에서 황금 비율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황금분할(*goldener Schnitt*)이라는 단어는 1835 년 독일의 수학자 마르틴 옴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되었지만, 심리학자 아돌프 차이징이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보편적 법칙"으로 정의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2023 년에 새롭게 공개되는 리베르소 모델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스 앤 원더스 2023 에서 1930 년대 초반 리베르소 디자인에 적용된 황금비율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컬렉션의 세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를 공개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는 1996 년에 출시한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를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새로운 칼리버 860 을 탑재했으며, 앞면 및 뒷면 다이얼 모두에서 시간과 분을 표시하며 뒷면 다이얼을 통해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투르비옹은 울트라 싰 듀오페이스 무브먼트 안에 플라이 투르비옹을 장착하고 뒷면 다이얼에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 획기적인 컴플리케이션이 특징입니다.



총 4 가지 컬러로 새롭게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모델은 클래식한 실버 컬러부터 깊고 그윽한 버건디, 블랙에 이르는 다채로운 컬러로 제작됩니다. 모노페이스 리베르소 스타일을 적용한 타임피스 케이스를 회전하면 드러나는 케이스백에 맞춤형 인그레이빙이나 원하는 장식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는 새롭게 디자인한 케이스에 리베르소 칼리버 179 를 재해석한 예술적인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스킨레톤과 래커 작업 등 자이로투르비용의 기술력과 시각적 효과를 집약시킨 리베르소 히브리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발전시켜온 180 가지의 워치메이킹 기술이 녹아 들어 있는 진귀한 작품입니다.

그랑 메종은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성과 전문 기술을 집약시켜 예거 르쿨트르의 혁신과 창의성을 대표하는 리베르소 모델을 새롭게 해석한 두 가지 여성용 타임피스를 공개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는 매력적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아르데코 패턴을 에나멜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케이스가 특징이며 그랑 퓨 에나멜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매혹적인 주얼리와도 같은 리베르소 시크릿 네크리스는 리베르소만의 오리지널 디자인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21 세기 여성들에게 리베르소를 착용하는 새롭고 우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케이스는 다이아몬드와 옉닉스를 아르데코 패턴으로 세팅하였으며 핑크 골드 링크와 옉닉스 비즈로 만든 물결 모양의 부드러운 체인 네크리스 형태로 선보입니다.

#### **워치스 앤 원더스: 새로운 부스와 몰입형 체험**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 2023 에서 예거 르쿨트르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유클리드가 황금비율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여 문서화된 시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정치, 법률, 사업,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던 것처럼 그랑 메종의 부스 역시 지식을 나누는 장소이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타임피스와 2023 년의 테마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스를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도를 구성하는 각 요소는 황금사각형과 황금나선 비율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고대 아고라의 중앙에 세워져 있던 기념비를 상징하는 물줄기가 부스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메종은 창의성을 상징하는 물을 ‘스크린’ 으로 활용하여 매혹적인 디지털 쇼를 선보입니다. 디지털 쇼에서 빛과 이미지, 사운드는 살아 숨 쉬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아름다움을 정의하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총 4 장으로 구성된 디지털 쇼는 경이로운 자연을 향한 인류의 탐구와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창의적 영감을 안겨준 모든 순간을 담아냅니다. 그 후 연구와 학습으로 넘어가 특정 비율의 편재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던 수학과 철학을 거쳐 마침내 인간이 만든 미적 기초가 된 조화로운 비율과 철학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오브제임과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아이콘인 리베르소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방문객들은 체험형 디스커버리 워크숍인 아틀리에 앙투안을 통해 2023 년의 테마를 더 자세히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틀리에 앙투안에서는 리베르소와 리베르소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황금비율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리베르소는 가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르헨티나의 유명 부츠 제작사 까사 파글리아노의 도움을 받아 그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2011 년부터 까사 파글리아노는 예거 르쿨트르와 손을 잡고 리베르소 트리뷰트 라인의 타임피스에 사용되는 스트랩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선보인 1931 카페가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공개됩니다. 프렌치 페이스트리 셰프 니나 메타예가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는 탁월한 풍미와 식감을 통해 황금비율과 발레드주의 정수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스 앤 원더스 마무리 후 올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리베르소 스토리즈 전시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황금비율을 테마로 한 전시회는 새로운 도시에서 위대한 타임피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phi$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